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3주간 운영

- 임시 인력(약 6천명) 투입... 종사자 휴식보장 과로 방지 조치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3주간을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 평시(‘24.7월 평균) 대비 약 11% 물량 증가 전망(일 1,660만 박스 → 1,850만 박스)

□ 증가된 택배물량 처리를 위해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화물차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6,000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 간선차량 2,085명, 임시기사 936명, 터미널지원 2,458명, 배송보조 인력 581명

○ 또한,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	책임자	팀 장	조태영 (044-201-4152)
		담당자	사무관	마철훈 (044-201-4153)
			주무관	조태형 (044-201-4155)